

린나이 가스레인지, 큰 화재 막아

찌개 끓이던 중 깜빡 외출에 안전센서가 밸브 잠귀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든 제품이 소비자에게만 족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증명됐다.

지난달 30일 린나이코리아 홍보팀에 이색적인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천안의 한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철 씨로 린나이 가스레인지가 화재를 막아줬다며 직접 손으로 쓴 2장의 감사편지를 보내온 것.

이재철씨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오전 10시 교회에 가기 위해 식구들과 모두 집을 비운 이후 저녁 6시에 집에 도착해 문을 연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운 탄 냄새에 깜짝 놀랐다.

부인이 찌개를 끓이다 깜빡 잊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그냥 나가 찌개가 시커멓게 타 있었던 것.

다행히 화재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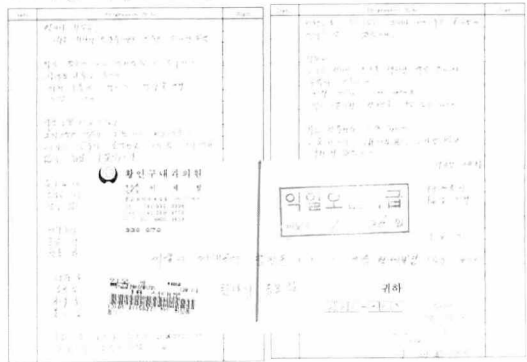
이유는 냄비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자 린나이 가스레인지가 자동으로 밸브를 잠궜던 덕분이었다.

이씨는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린나이 가스레인지 덕분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철씨가 사용한 제품은 1995년도에 출시된 린나이 세이플 레인지(모델명 Rinnai SAFULL RFT-β1CSBL)로 안전센서가 스스로 온도를 감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세이플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세이플 기능은 버너에 상황별 빈 냄비 태우기 방지온도가 정해져 있어, 요리시 내부온도가 과열되거나 음식물이 늘어 불고 국물이 넘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소화해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이다.

이재철씨와 아내 김희정 씨의 편지



이재철 씨가 사용하는 린나이 안전센서



→ 이재철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1995년도 제품 Rinnai SAFULL 가스레인지 RFT-β1CSBL

세이플 버너에는 상황별 빈 냄비 태우기 방지온도가 설정되어 있어 불이 꺼질 경우, 일정 온도 차등으로 소화기 등으로 냄비를 태우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하다 가스 불 끄는 것을 깜빡 잊더라도 냄비 가타는 것을 미리 방지해 줘 안심하고 요리를 할 수 있다.

이씨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소비자를 위해 신경 쓴 제품을 만드는 린나이코리아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며 “앞으로 린나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린나이 전도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린나이코리아 김범석 홍보팀장은 “린나이는 1990년대부터 고객 안전을 강화한 세이플 신기술을 도입하고, 2005년에는 열이 일정온도(268°C)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하이컷(HI-CUT)기능을 장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고객안전과 편의를 위해 꾸준히 새로운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